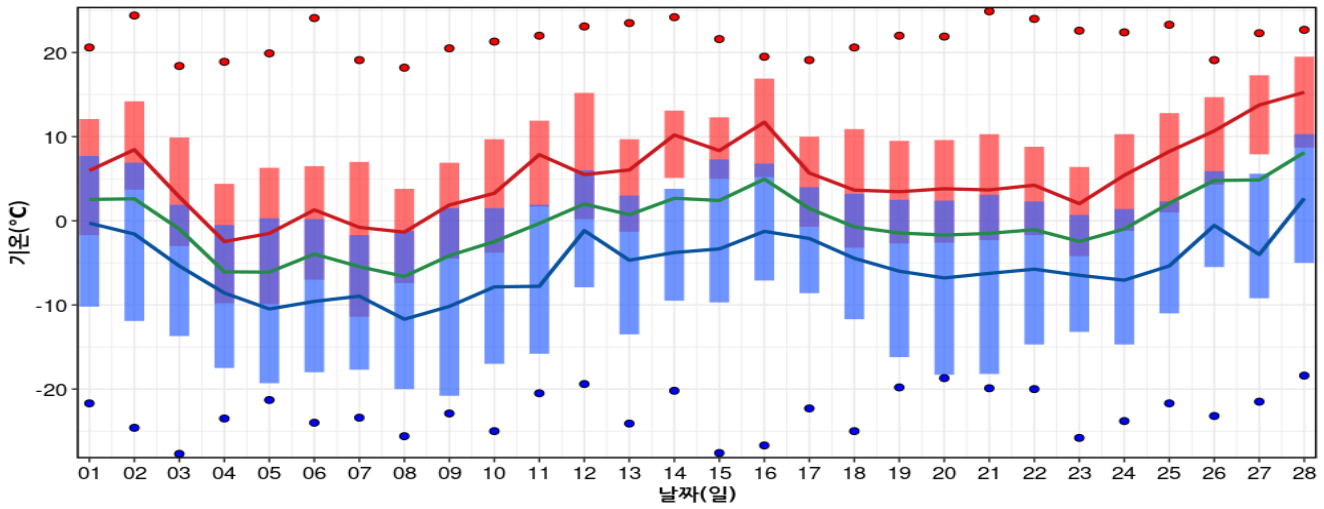


기후분석정보

2월 기후 동향

기온

2월 기온 시계열



- ▶ 막대: 2025년 2월 전국 66개 지점의 일별 (빨강)최고기온 범위, (파랑)최저기온 범위
- ▶ 실선: 2025년 2월 전국 66개 지점 평균 일별 (초록)평균기온, (빨강)최고기온, (파랑)최저기온
- ▶ 점: 1973~2025년 2월 전국 66개 지점 기온 일별 (빨강)최고기온 극값, (파랑)최저기온 극값
- ※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1973~1989년)전국 56개+제주 2개, (1990~2025년)전국 62개+제주 4개

현황

- 2월 3~10일, 18~24일 두 차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2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1.2°C)보다 1.7°C 낮은 -0.5°C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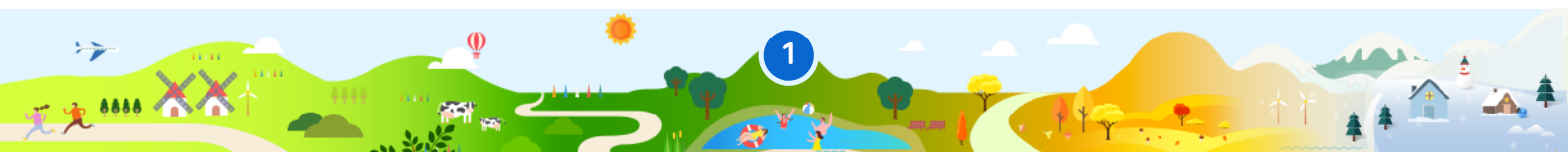
※ 평년 비슷범위: 0.6~1.8°C

2025년 2월 평균기온/평균 최고기온/평균 최저기온 (1973년 이후 전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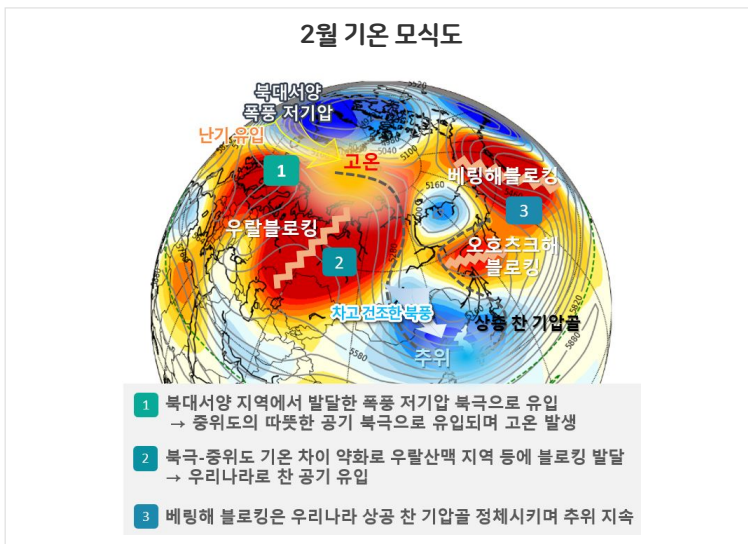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월			
	평균값 (°C)	평년값 (°C)	평년편차 (°C)	순위(최저)
평균기온	-0.5	1.2	-1.7	15위
평균 최고기온	5.1	7.0	-1.9	13위
평균 최저기온	-5.6	-3.9	-1.7	10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5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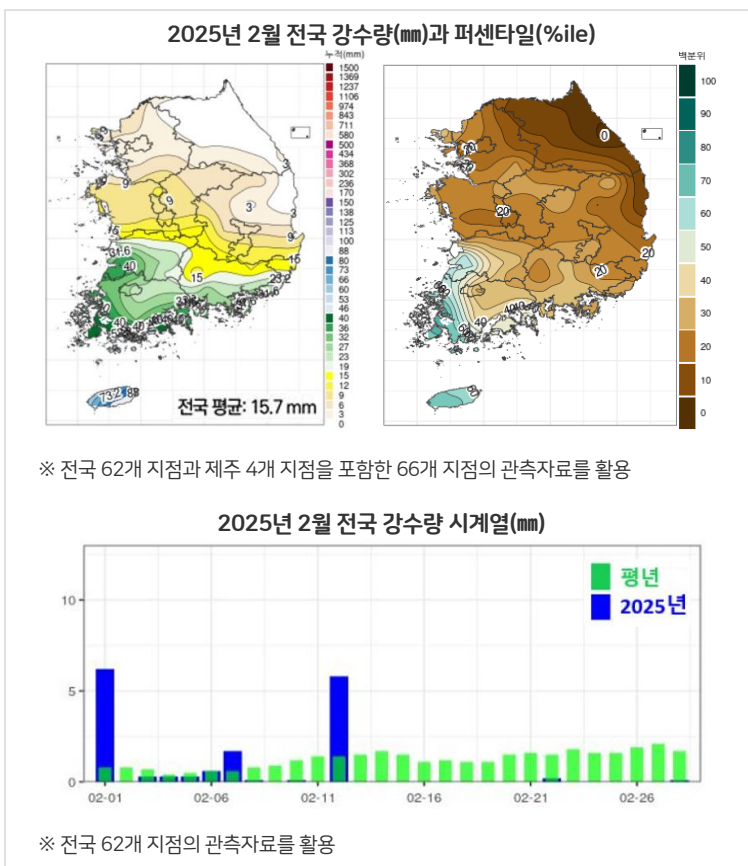
추위 발생 원인



원인

- 2월 초에 북대서양(그린란드 남쪽 해양) 지역에서 발달한 폭풍 저기압이 북극으로 유입되어 우랄블로킹을 발달시켰고,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어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 중순경에는 블로킹이 약해지고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되었으나, 음의 북극진동이 강해지고 시베리아 지역에 블로킹이 다시 발달하면서 18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강수량



현황

- 2월 전국 강수량은 15.7mm로 평년(27.5~44.9mm)보다 적었으며, 강수일수는 4.8일로 평년(6.1일)보다 1.3일 적었습니다.
- 눈일수는 6.1일로 평년(4.4일)보다 1.7일 많았습니다.

원인

- 저기압의 영향으로 1일에는 남부지방, 12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렸으나, 차고 건조한 북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어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 눈은 주로 2월 전반부에 집중되었는데, 대륙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해기차(바닷물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025년 2월 강수량/강수일수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값	퍼센타일(강수량)	순위(최저)
		평년편차(강수일수)	
강수량	15.7mm	16.1%ile	12위
강수일수	4.8일	-1.3	14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5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이상고온 및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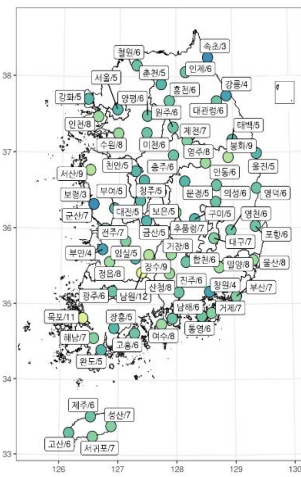
이상고온 발생일수

▶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낮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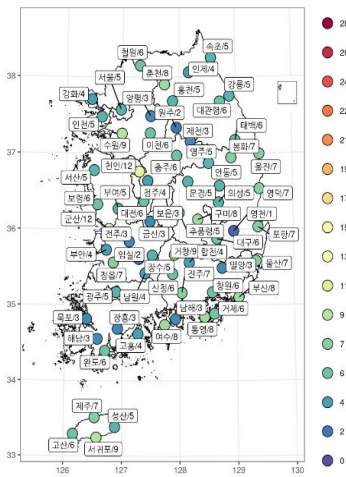
※ 퍼센타일: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일)



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일)



• 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 6.3일(작년 1.1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목포 11일, 장수 9일, 봉화 9일, 산청 8일, 인천 8일, 울산 8일, 여수 8일, 영주 8일

• 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 5.4일(작년 0.0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천안 12일, 군산 12일, 거창 9일, 서귀포 9일, 부산 8일, 여수 8일, 구미 8일, 통영 8일

*평균방법: 각 지점별 이상저온 발생일수 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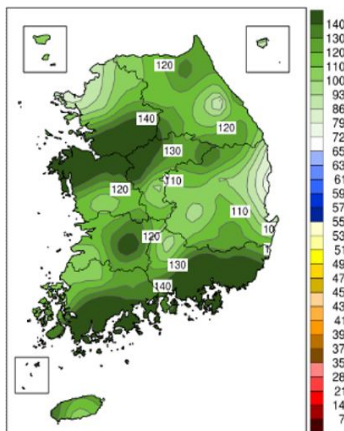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

▶ 기상가뭄 판단 기준: 최근 6개월 강수량(표준강수지수*)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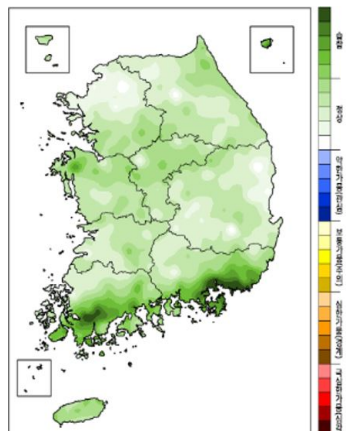
*표준강수지수(기상청):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1973년~전년)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습함(1.0 이상), 정상(0.99~0.99), 약한 가뭄(-1.00~-1.49), 보통 가뭄(-1.50~-1.99), 심한 가뭄(-2.0 이하), 극심한 가뭄(-2.0 이하 20일 이상)

강수평년비(%)



가뭄 현황



• 6개월(24.9.1.~25.2.28.) 전국 누적강수량: 455.5mm로 평년(357.1mm) 대비 126.8%입니다.

※ 전국 평년비: 제주(4개 지점)를 제외한 62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

• 가뭄 현황: 기상가뭄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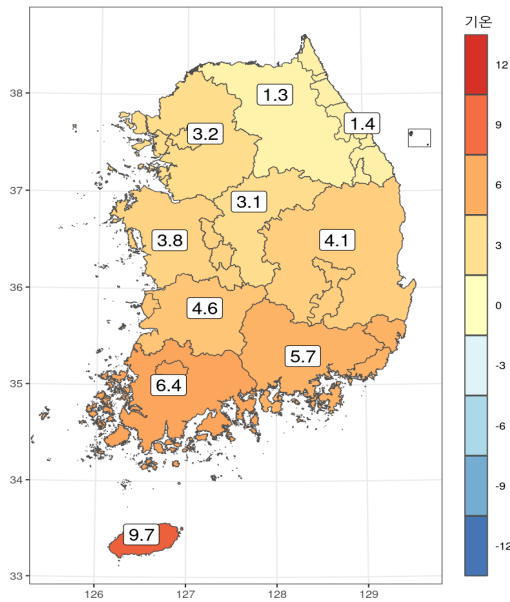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 - 기온·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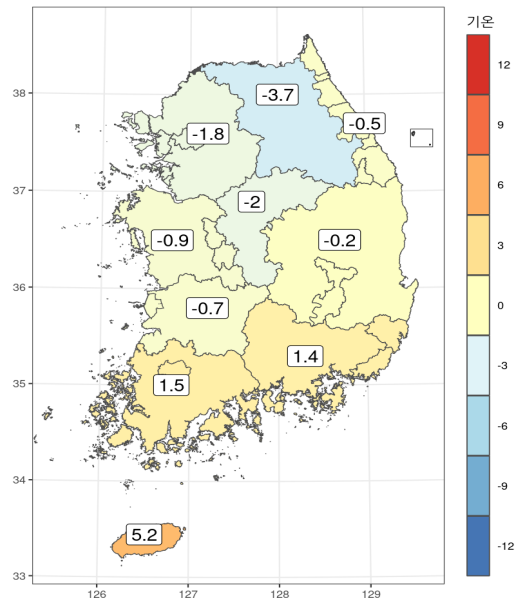
작년 비교

- 2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4.6℃ 낮았고, 강수량은 작년보다 86.9mm 적었습니다.
- [기온] 올해(-0.5℃) vs 작년(4.1℃)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기온이 낮았으며, 작년 대비 -5.3~-1.9℃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 [강수] 올해(15.7mm) vs 작년(102.6mm)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강수량이 적었으며, 작년 대비 -128.9~65.3mm 강수량 분포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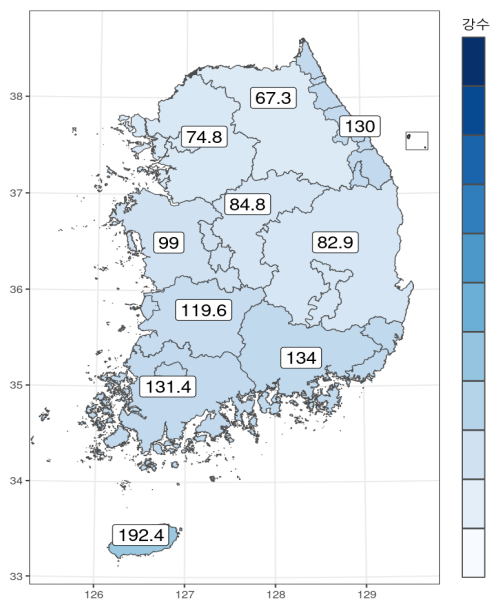
2024년 2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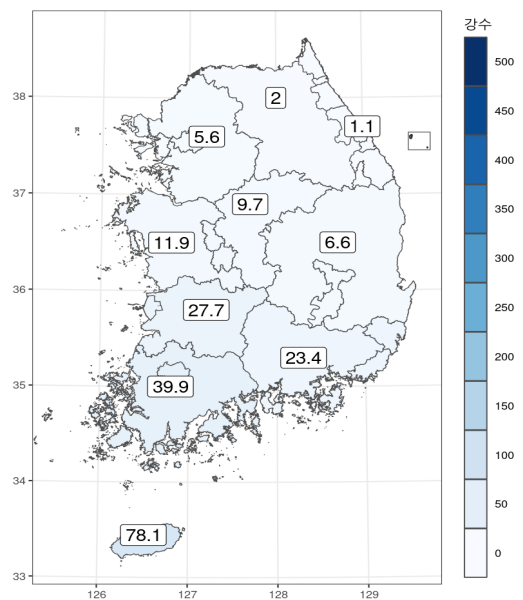
2025년 2월 평균기온(℃)



2024년 2월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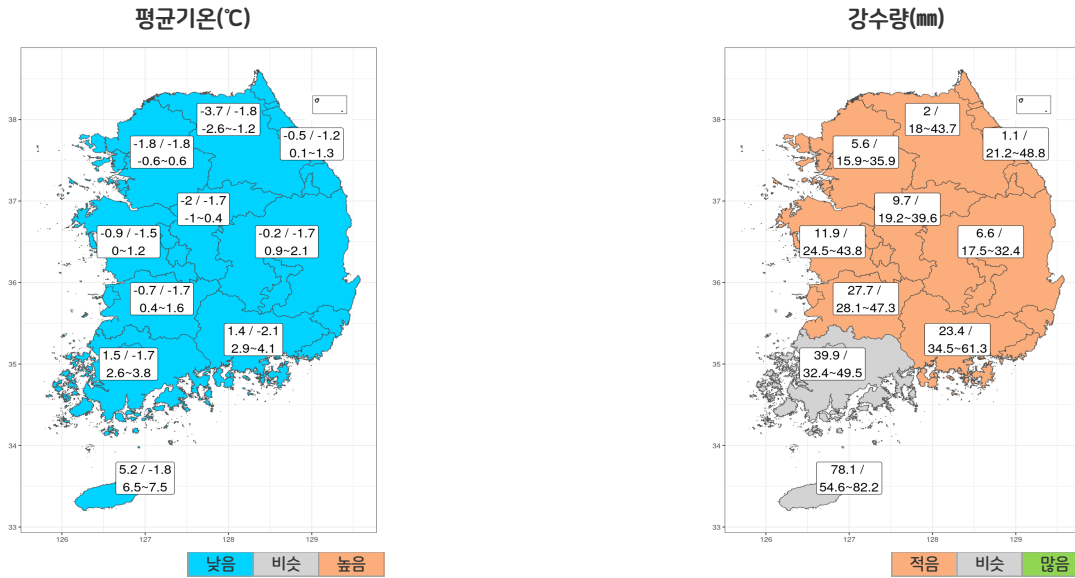
2025년 2월 강수량(mm)



※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평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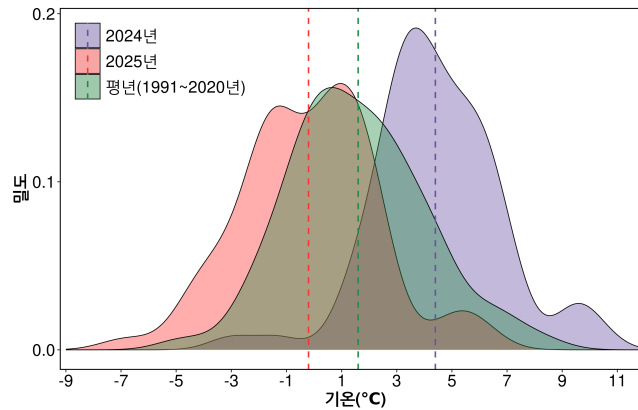
- 2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기온] 전국 평균기온은 -0.5℃로 평년(0.6~1.8℃)보다 낮았으며, 평균기온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 [강수량] 전국 강수량은 15.7mm로 평년(27.5~44.9mm)보다 적었고,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네모 박스 위: 월 평균값(℃)/편차(℃),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

※ 네모 박스 위: 월 누적값(mm),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mm)

평균기온 확률밀도분포



- ▶ 채색: 우리나라 66개 지점 (빨강)2025년, (보라)2024년(2월 평균기온 1위), (초록)평년 월평균기온 분포
- ▶ 점선: 우리나라 66개 지점 (빨강)2025년, (보라)2024년(2월 평균기온 1위), (초록)평년 월평균기온
- ※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5년) 62개 지점)

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2024년 3월 ~ 2025년 2월)

년/월	2024년										2025년		기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평균(℃)	6.9	14.9	17.7	22.7	26.2	27.9	24.7	16.1	9.7	1.8	-0.2	-0.5	
평년편차(℃)	+0.8	+2.8	+0.4	+1.3	+1.6	+2.8	+4.2	+1.8	+2.1	+0.7	+0.7	-1.7	평년(1991 ~ 2020년)
순위(상위)	11	1	14	1	5	1	1	2	3	19	14	37	1973 ~ 2025년

※ 전국평균 및 순위: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5년) 62개 지점)



주요 기후요소 비교- 강수·눈일수

작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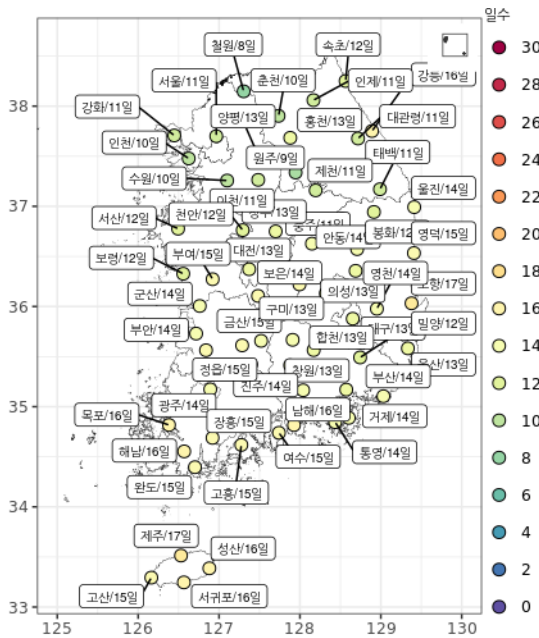
· [강수일수] 올해(4.8일) vs 작년(13.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보다 강수일수가 적었습니다(평균 6.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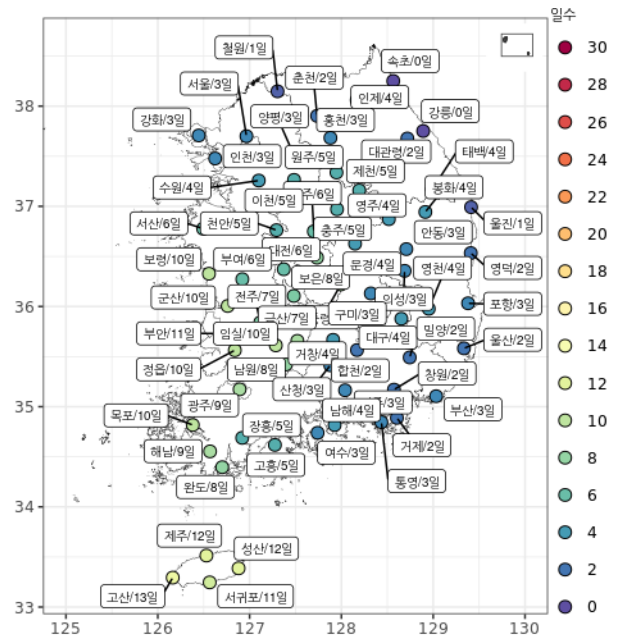
· [눈일수] 올해(6.1일) vs 작년(5.2일)

서울, 인천, 수원, 북강릉,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보다 눈일수가 많았습니다(평균 4.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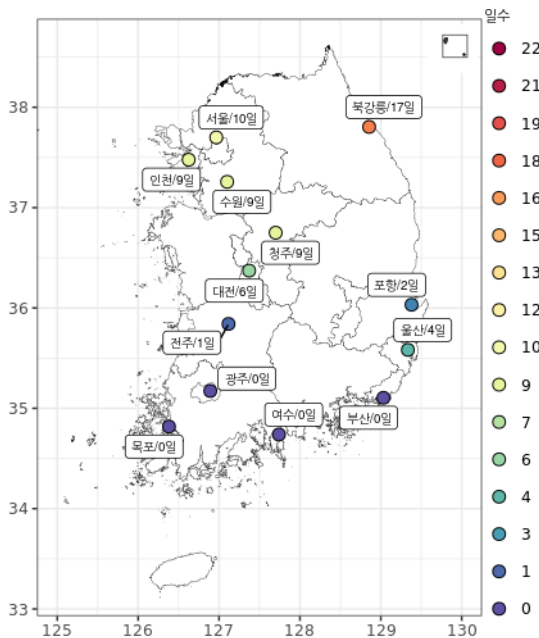
2024년 2월 강수일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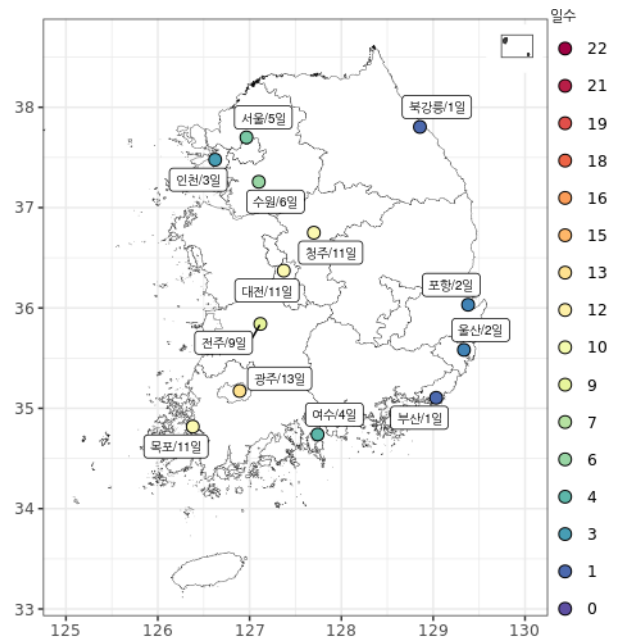
2025년 2월 강수일수(일)



2024년 2월 눈일수(일)



2025년 2월 눈일수(일)



※ 강수일수: 일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일수

※ 눈일수: 눈, 소낙눈, 가루눈, 눈보라, 소낙성진눈개비, 진눈개비, 싸락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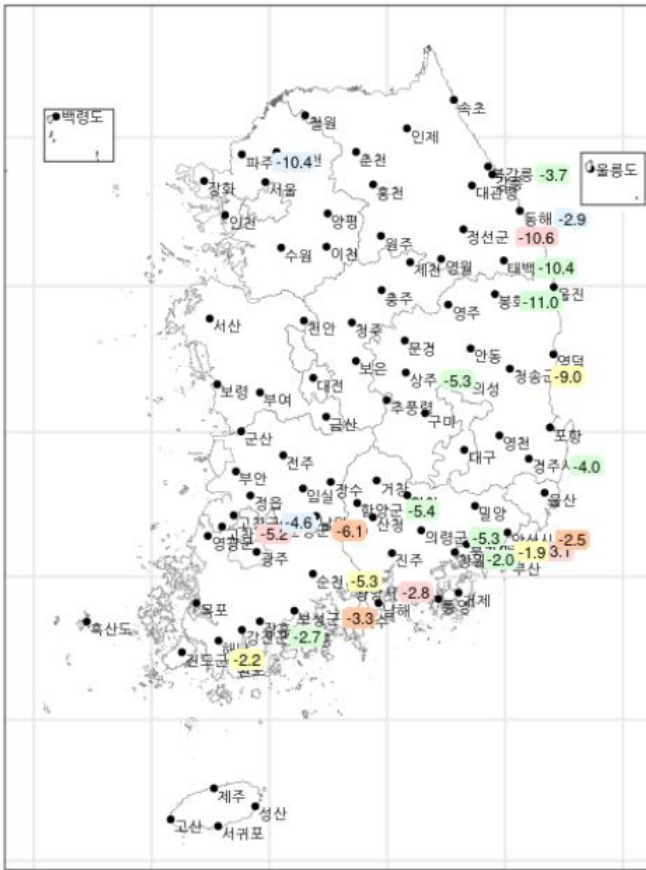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

지점별 기후통계 경신 현황

- **(기온)**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월최저기온 최저 5순위 이내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 **(강수량)**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가운데, 특히 동쪽 지역(강원도, 경상도)은 대륙고기압의 북동쪽으로는 확장이 약하고 저기압의 영향도 적어 월강수량 최소 5순위 이내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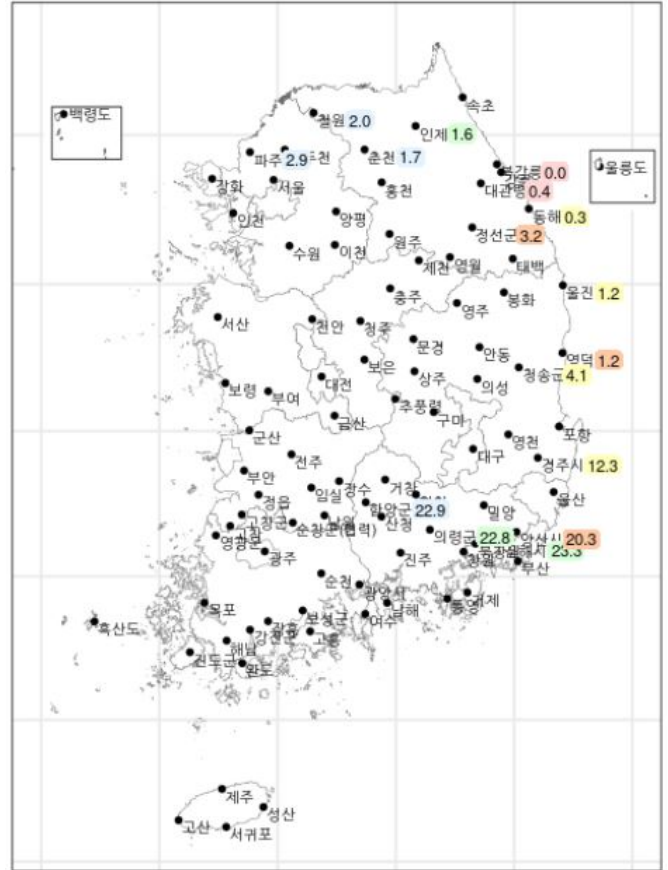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월평균 최저기온 최저(℃) (5순위 이내)



- 1위: 광양시(-2.8℃), 김해시(-3.1℃), 고창(-5.2℃), 정선군(-10.6℃)
- 2위: 양산시(-2.5℃), 보성군(-3.3℃), 순창군(-6.1℃)
- 3위: 북창원(-1.9℃), 진도군(-2.2℃), 순천(-5.3℃), 청송군(-9℃)
- 4위: 창원(-2℃), 강진군(-2.7℃), 북강릉(-3.7℃), 경주시(-4℃), 상주(-5.3℃), 의령군(-5.3℃), 함양군(-5.4℃), 태백(-10.4℃), 봉화(-11℃)
- 5위: 동해(-2.9℃), 고창군(-4.6℃), 파주(-10.4℃)

월강수량 최소(mm) (5순위 이내)



- 1위: 대관령(0.4mm), 북강릉(0mm)
- 2위: 양산시(20.3mm), 정선군(3.2mm), 영덕(1.2mm)
- 3위: 경주시(12.3mm), 청송군(4.1mm), 울진(1.2mm), 동해(0.3mm)
- 4위: 김해시(23.3mm), 의령군(22.8mm), 인제(1.6mm)
- 5위: 함양군(22.9mm), 파주(2.9mm), 철원(2mm), 춘천(1.7mm)

※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



2월 해양 기후 특성

한반도 해수면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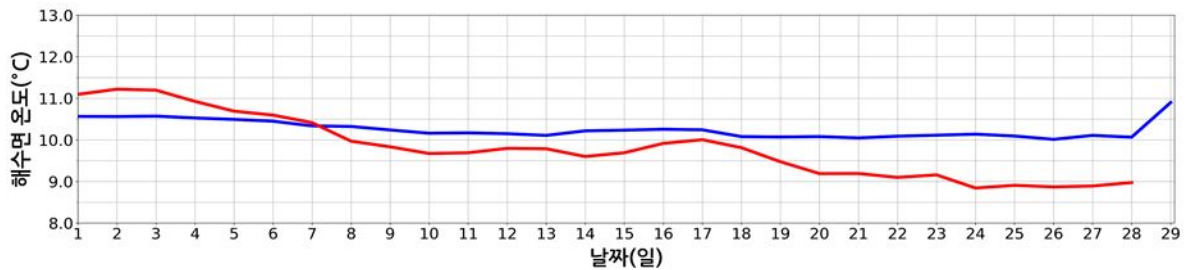
- **[관측자료]** 우리나라 근해의 2월 평균 해수면온도는 9.9℃로 최근 10년 평균(10.3℃)보다 0.4℃ 낮았습니다. 해역별로 서해는 5.4℃로 최근 10년 평균(5.3℃)보다 0.1℃ 높았고, 동해와 남해는 각각 11.0℃, 13.2℃로 최근 10년 평균(11.7℃, 14.0℃)보다 모두 0.7℃, 0.8℃ 낮았습니다.

* 한반도 연근해 해수면온도는 국가승인통계 지점 중 10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해양기상부이 11개 지점을 활용하였음

- **[재분석자료]**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평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해중부 연안에서 평년 대비 최대 3℃ 이상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 외 해상에서는 평년 대비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대 4℃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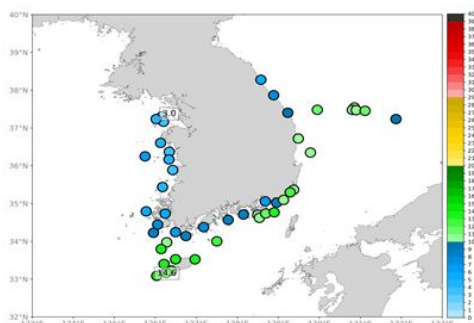
관측자료

2월 해수면 온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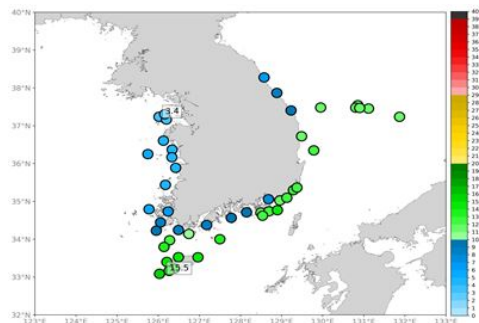


2월 전 해상 일별 평균 해수면온도 (파랑) 최근 10년(2015~2024년), (빨강) 2025년
2015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해양기상부이 11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2025년 2월 평균 해수면온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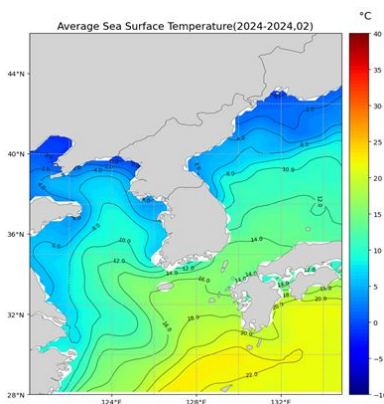


최근 10년 2월 평균 해수면온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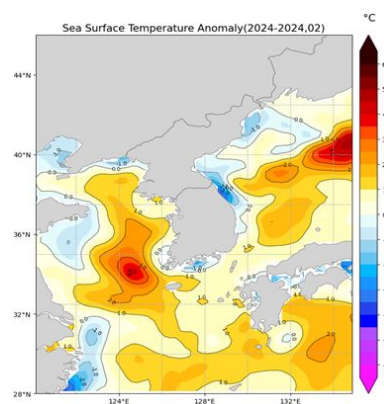


재분석자료(OISST)

2025년 2월 평균 해수면온도 분포



평년(1991~2020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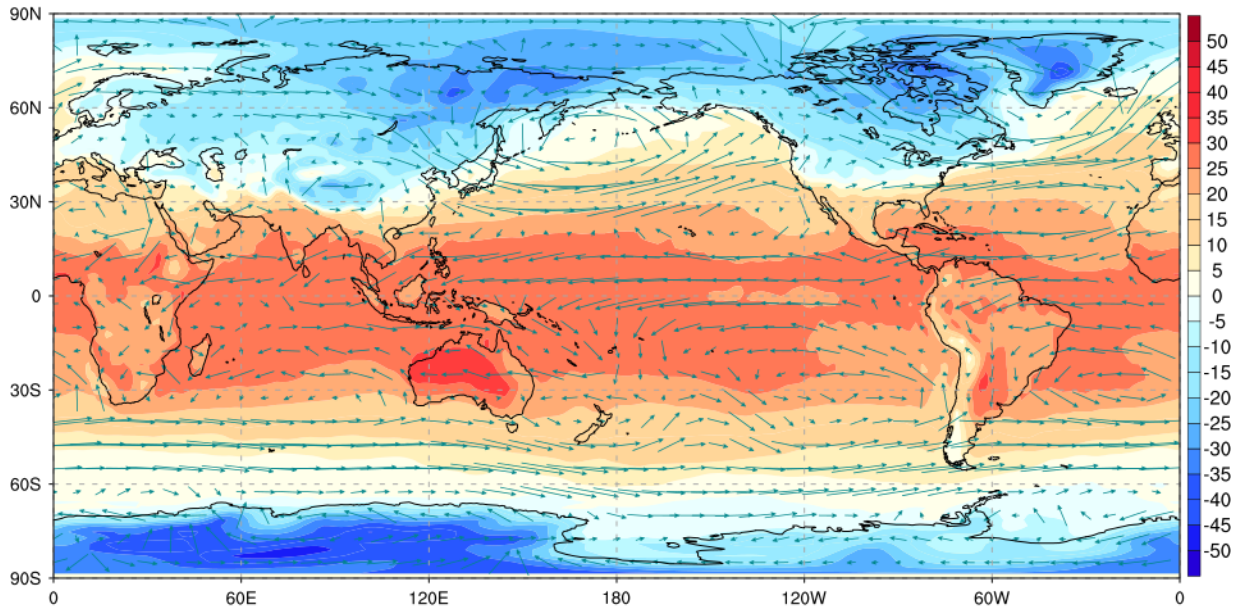
※ 자료출처 : NOAA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전 세계 기온

- 전 세계적으로 2월 평균기온은 약 13.0°C였으며, 평년 대비 약 0.3°C 높았습니다.
- [평년 대비 높은 지역] 북유럽, 남아메리카 중부, 알래스카, 캐나다 북동부, 일본 북부, 호주 서부
- [평년 대비 낮은 지역] 동유럽, 동시베리아, 캐나다 서부, 남아메리카, 동아시아

a) 평균기온(°C)



b) 평균기온 평년편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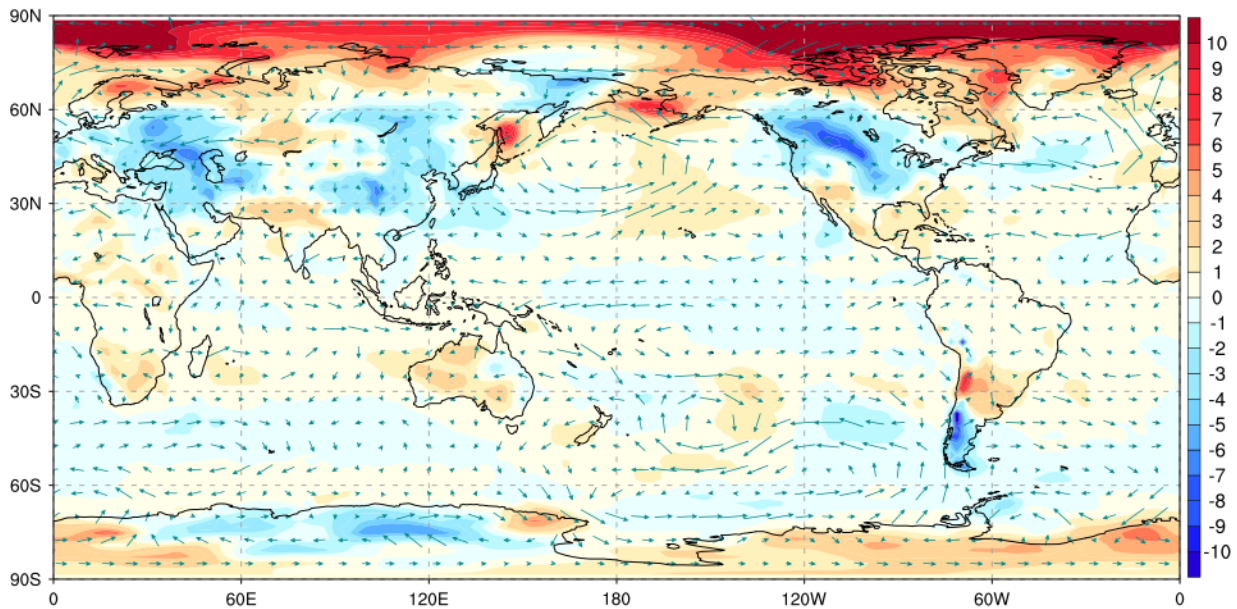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빨강) 0°C 이상의 평균기온, (파랑) 0°C 미만의 평균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그림 b) ▶ 채색: (빨강) 평년보다 높은 기온, (파랑) 평년보다 낮은 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

그림 b) 평균기온 평년편차(°C): 2025년 2월 평균기온 - 평년(1991~2020년) 2월 평균기온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2m 평균기온)

※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 세계 강수량

- 전 세계적으로 2월 평균강수량은 약 75.5mm 였으며, 평년 대비 약 1.9mm 적었습니다.
- [평년대비 높은 지역] 필리핀, 미국 서부, 콜롬비아, 브라질 북부, 호주 북동부, 북태평양 북동부, 북대서양 북부
- [평년대비 낮은 지역] 유럽, 러시아 서부, 일본, 호주 북서부, 뉴질랜드, 미국 남부, 브라질 남동부, 인도양 북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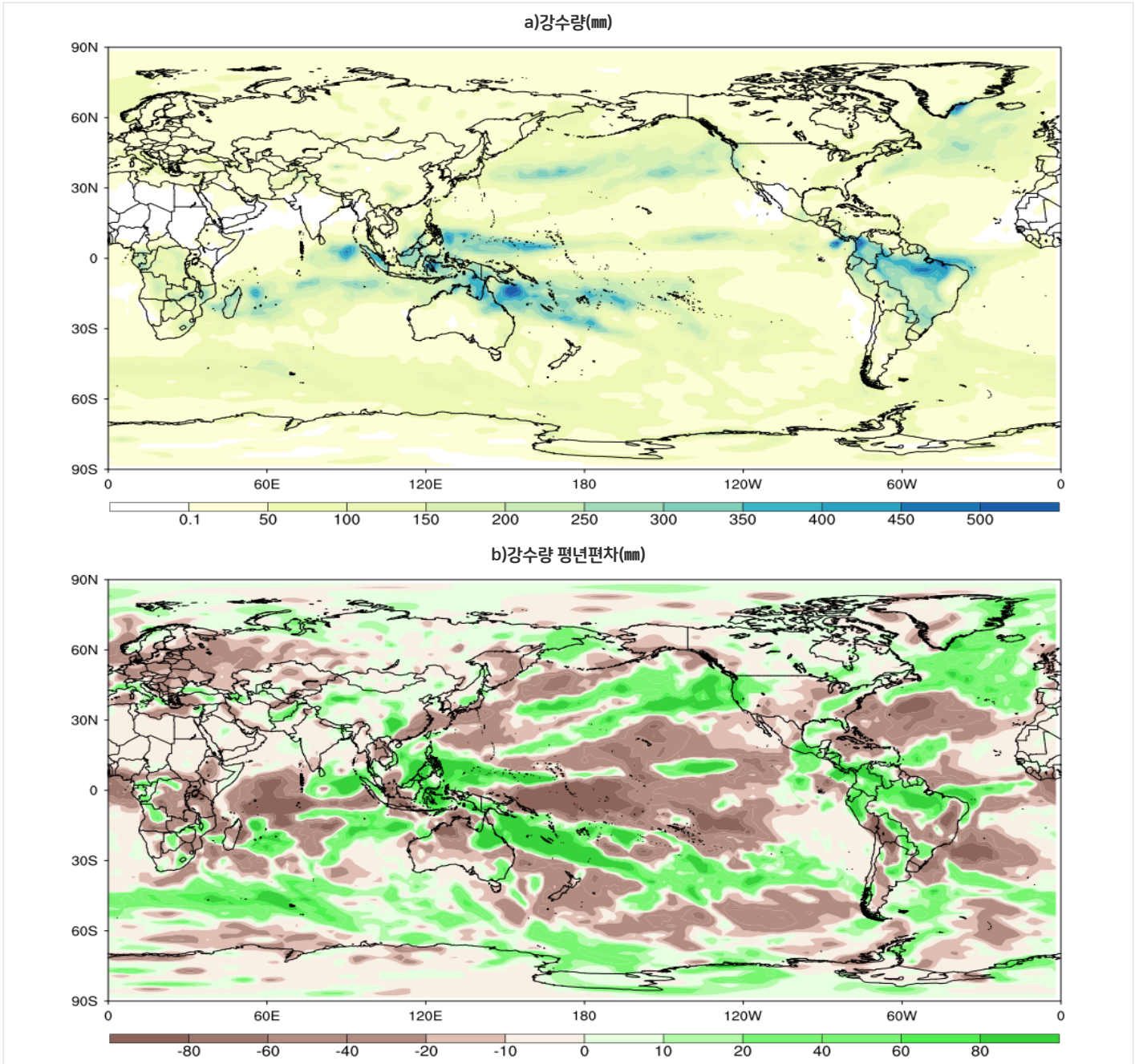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초록)월 누적 강수량

그림 b) ▶ 채색: (초록)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갈색)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그림 b) 강수량 평년편차(mm): 2025년 2월 누적 강수량 - 평년(1991~2020년) 2월 누적 강수량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월 전 세계 기상재해



● 폭우·홍수 ● 폭풍 ● 폭설 ● 산불



● 폭우·홍수

(브라질) 남동부에서 폭우, 강풍, 뇌우로 인한 피해 발생, 26명 사망, 400명 이상 대피, 약 3,700명 이주(2.3.)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하루 최대 8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홍수 발생, 2명 사망, 1,000여 명 대피, 2,000여 채 정전 피해(2.6.)
 (필리핀) 중부와 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홍수 발생, 11,000여 명 대피, 총 164,800명 피해(2.12.)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48시간 동안 151mm의 폭우가 내려 도시 대부분에 홍수 경보 발령, 일부 지역에 돌풍·뇌우 경보 발령(2.14.)
 (마다가스카르)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 발생, 2,936명 대피, 강 수위 상승으로 주택 720채 피해(2.15.)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 주와 남부 칸다하르 주에 폭우가 내려 홍수 발생, 파라 주에서 21명, 칸다하르 주에서 8명 사망(2.25.)

● 폭풍

(마다가스카르) 열대성 폭풍 'Faïda'가 동부와 중부를 지나면서 폭우와 강풍 피해 발생, 365명 대피, 주택 93채 파손(2.4.)
 (미국) 비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동부 지역을 강타,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 발생, 18명 사망, 캔터키주에 재난지역 선포(2.12.)
 (호주) 열대저기압 'Zelia'가 필바라 북부 지역에 상륙, 160여 명 대피, 여러 도로 및 학교 폐쇄(2.14.)

● 폭설

(일본)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cm의 눈이 내려 관측 사상 최고 강설량 기록(2.4.)
 (튀르키예) 북부와 동부에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동부 지역에서 2,921개 도로 폐쇄, 항공편 300편 이상 취소(2.21.)

● 산불

(칠레) 전역에서 22건의 산불 발생, 오히긴스, 메트로폴리타나, 마울레, 뉴블레 등에서 산불이 확산돼 적색 경보 발령(2.9.)

※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안내해 드리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limate.go.kr/home/bbs/list.php?code=27&bname=scrap>)

전 지구 월별 기온 편차와 순위 (2024년 2월 ~ 2025년 1월)

년/월	2024년											2025년	기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편차(℃)	1.42	1.35	1.28	1.19	1.22	1.21	1.27	1.26	1.33	1.33	1.28	1.33	1901 ~ 2000년
순위(상위)	1	1	1	1	1	1	1	2	2	2	2	1	1880 ~ 2025년

※ 본 자료는 NOAA(<http://www.ncei.noaa.gov/access/monitoring/climate-at-a-glance/global/time-series>)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익월 20일 경에 값이 산출되므로 1월 자료까지만 제공하였음(2월 값은 2025년 3월 20일 경 발표)

※ 편차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20세기)의 100년간 월평균자료, 순위는 1880년부터 146년(2025년 기준)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기후 감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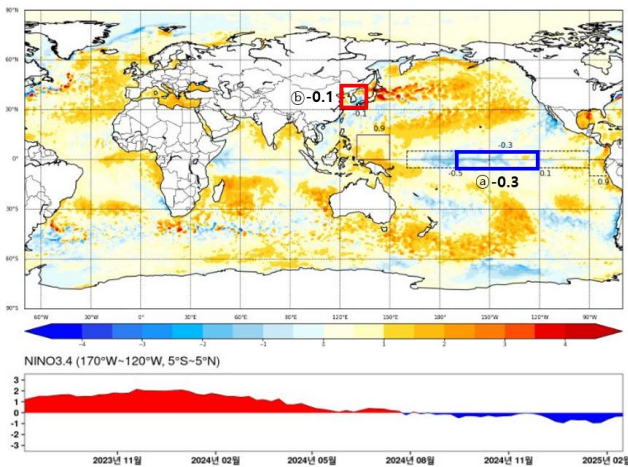
해수면온도

▶ 우리나라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 **[해수면온도]** 해수면온도(2월 16일~22일 기준)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㉓)에서 평균 26.4°C로 평년보다 0.3°C 낮았고, 우리나라 주변(㉒)의 해수면온도는 평균 9.7°C로 평년보다 0.1°C 낮았습니다.
-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해저수온(2월 27일 기준)은 서태평양(130°E~150°E)에서 수심 300m까지 0.5~3.0°C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동태평양(160°W~80°W) 수심 100m 부근까지 -2.0~-0.5°C로 음의 해저 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 해수면 온도 평년편차 (A)분포도(2월 16일~22일) 및 (B)시계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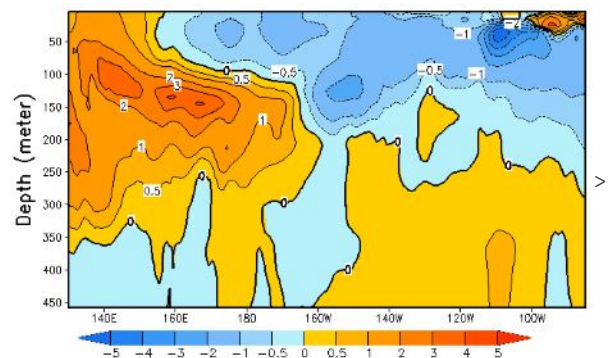


㉓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5°S~5°N, 170°W~120°W

㉒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

※ 자료출처: NOAA OISSTv2(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평년편차(2월 27일)(°C)



※ 평년보다 높은 수온(빨강)/평년보다 낮은 수온(파랑)

※ 자료출처: NOAA/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www.pmel.noaa.gov/t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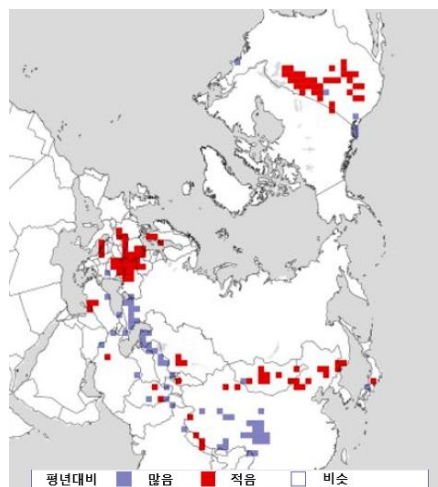
눈덮임 및 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

- **[눈덮임]** 2월 28일 기준 중·동유럽, 미국 북부, 몽골, 중국 북동부에서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었으며,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남부에서는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 **[북극해 얼음]** 2월 북극해 전체 얼음 면적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바렌츠해와 오호츠크해에서 평년보다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 북대서양 폭풍 저기압의 북극 유입으로 인한 북극 기온 상승이 이러한 북극해 얼음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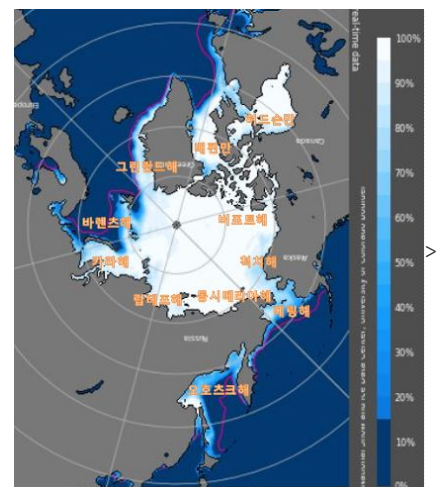
눈덮임 면적 현황(2월 28일)



※ 자료출처: Rutgers University(눈덮임 평년편차)

※ 평년: 1970년 9월~2000년 8월

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2월)



▶ 실선: (분홍색)북극해 얼음 평년(1981~2010년) 면적

※ 자료출처: 미국 설빙데이터센터(NS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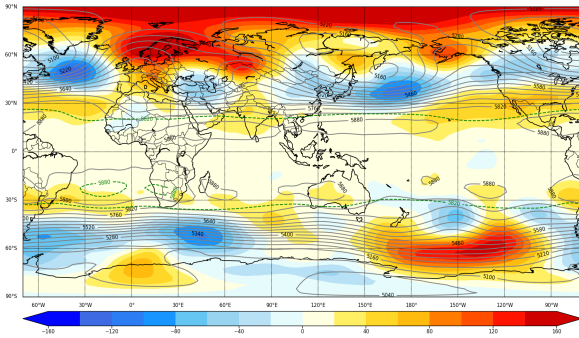
※ 계절에 따라 감시 및 분석 요소는 변경될 수 있음

기후 감시 정보

전 지구 순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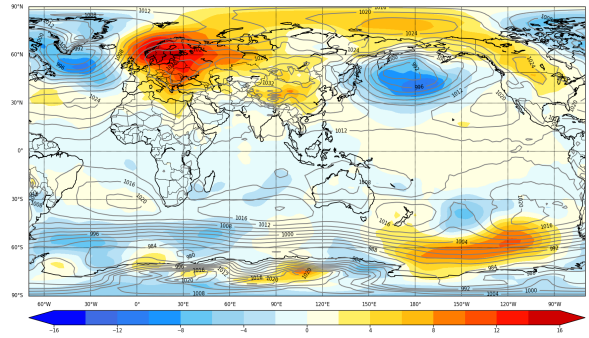
- **[500hPa 지위고도]** 유럽, 러시아 서부, 미국 중부, 멕시코, 인도, 호주 서부, 남태평양 남부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북대서양 북부, 북태평양 북서부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
- **[해면기압]** 유럽, 러시아 서부, 몽골, 중국, 캐나다 서부, 남태평양 남부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 일본, 캐나다 북동부, 호주, 북대서양 북부, 북태평양 북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

500hPa 지위고도(gpm)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지위고도, (파랑)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
- ▶ 실선: (검정)2월 평균 지위고도, (초록)2월 평년 지위고도

해면기압(hPa)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해면기압, (파랑)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
- ▶ 실선: (검정)2월 평균 해면기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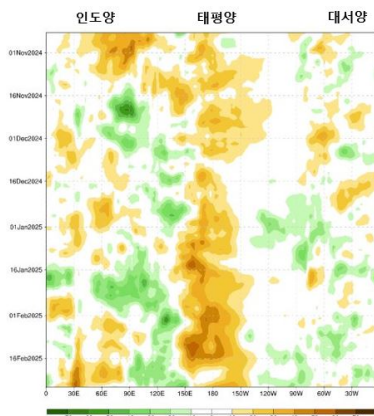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열대 대기 순환장

- **[상향 장파복사]** 열대 서태평양에서는 2월 내내 대류활동이 평년에 비해 활발하였고, 열대 인도양과 중태평양에서는 2월 내내 대류활동이 평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 **[850hpa 동서바람]** 2월 전반적으로 열대 서태평양에서 동풍편차가 나타났고, 동태평양에서는 서풍편차가 나타났습니다.
- **[300hpa 상층 수렴발산]** 2월 전반적으로 열대 중~서태평양에서는 상층 수렴이 우세했으며, 열대 인도양·대서양에서는 상층 발산이 우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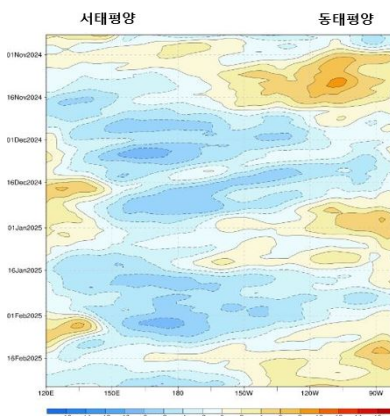
- * 상향 장파복사: 지표에서 대기(위쪽으로)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상향장파복사 편차가 음이면 평년보다 대류활동이 활발, 양이면 평년보다 대류활동이 감소)
- * 동서바람: 서풍편차가 강화되면 엘니뇨 발달을 지원, 동풍편차가 강화되면 라니냐 발달을 지원함
- * 수렴발산: 특정 영역에서 수렴으로 공기의 유입(수렴)과 유출(발산), 대기 상층의 발산이 있는 곳에서는 위로 상승하는 기류가 생겨 대기가 불안정함

상향 장파복사 평년편차(w/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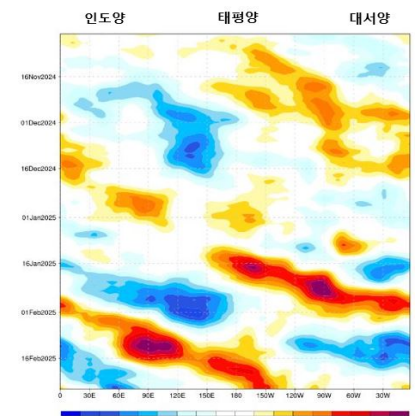
- ▶ [5S~5N] 상승기류(녹색)/하강기류(갈색)

850hPa 동서바람 평년편차(m/s)



- ▶ [5S~5N] 서풍 편년편차(빨강)/동풍 편년편차(파랑)

300hPa 상층 수렴발산 평년편차(m/s)



- ▶ [5S~5N] 상승 발산(파랑)/상층 수렴(빨강)

※ 자료출처(상향 장파복사 평년(1981~2010년)편차):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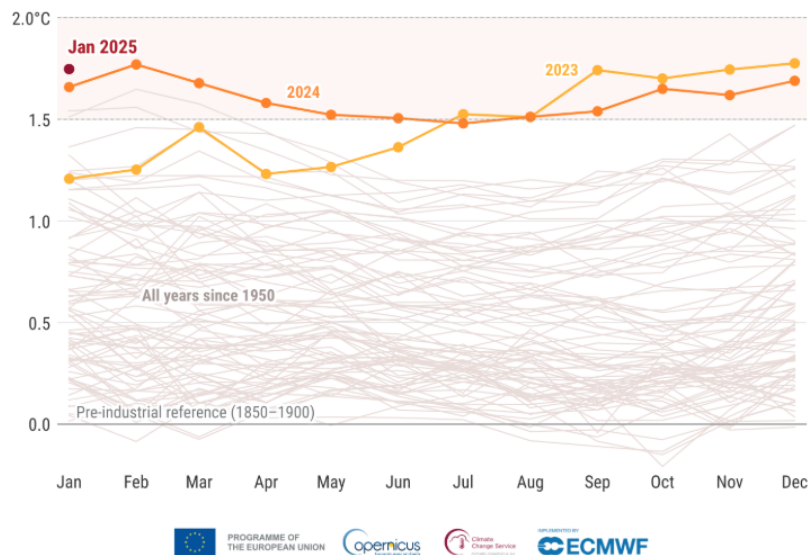
※ 자료출처(850hPa 동서바람 및 300hPa 상층 수렴발산의 평년(1991~2020년)편차):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기후 이슈

- 올해 1월 전 지구 평균기온 역대 최고 기록 -

1월 전 지구 평균기온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는 2월 6일 올해 1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1월 중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13.23℃로 1991~2020년 1월 평균보다 0.79℃ 높았고,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75℃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1월(13.14℃)의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며, 엘니뇨 현상에 의해 기온이 높았던 작년 1월과 달리, 엘니뇨가 약화되어 중립상태를 유지했던 올해에도 역대 가장 높은 전 지구 1월 평균기온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림 1]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월별 전 지구 표면기온 편차

*출처: C3S 2025년 2월 6일 보도자료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관측된 1월 역대 최고기온

이와 같은 높은 1월 기온은 우리나라의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관측되었습니다. 2월 14일 극지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최고기온은 8.1℃로 1월 중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의 6.7℃를 1℃ 이상 넘겼으며, 일 최고기온이 7.0℃보다 높았던 날도 1월에만 4번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올해 1월 평균기온은 -0.3℃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0년 12월과 같았습니다. 기록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이렇게 높은 기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또 새로운 기록 경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2] 1월 15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주변 모습

*출처: 극지연구소